

이동통신시장 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의 소비자편익 추정

김 병 운*

*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Estimating the Consumer Benefits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i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

Byung-Woon Kim*

*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

요약

MVNO 제도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자가 이동망사업자로부터 주파수를 임대하여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수익을 취한 후 이동망사업자에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있다.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MVNO 제도가 도입된 경우를 가정하여 소비자편익을 추정하였다. 추정을 위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월별 통화량 자료를 이용하였다. 추정결과 이동전화의 가격탄력성 -0.74, 요금인하율 10%하에서 약 9,000억원, 요금인하율 20%하에서는 약 1조 9천억 원의 소비자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

I. 서론

지난 2003년 7월 25일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활성화를 위해 설비기반경쟁(Facilities-based Competition)보다는 서비스기반경쟁(Service-based Competition)을 지향하겠다는 발표와 더불어 유선통신사업자인 KT, 하나로 통신, 테이콤 및 온세통신 등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 편익증대 차원에서 이동통신시장에 가상이동망사업자(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: MVNO)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,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MVNO제도 도입은 유선시장의 LM통화 사업자 사전선택제(Carrier Pre-Selection: CPS) 도입과 함께 큰 이슈가 되고 있다[김병운 외, (2003)].

MVNO 출연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경우 Kingston Communications, Energis, One.Tel, BT 등이 자사의 유선서비스 보완,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융합서비스 제공 및 광대역유선망 서비스의 보완서비스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. 특히, One.Tel은 BT Cellnet(현 mm02)의 망을 이용하여 기존 이동망사업자인 Vodafone 대비 월기본료 60%, 통화료 20% 할인된 요금¹⁾으로 2001년 11월 현재, 일반가정의 유선전화를 제공하고 있다. 또한, BT는 mm02로부터 Network Capacity를 구매하여 2002년 10월 1일 "Mobile Sense"라는 서비스명으로 이동망사업자인 Vodafone 대비 월기본료 20%,

통화료 20% 할인된 요금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였다[Ananova (2002), BT (2003), Europemedia (2003)].

이러한 유선사업자들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은 1999년 11월 MVNO 서비스를 개시한 Virgin Mobile 성공사례²⁾, 주요 선진국들의 MVNO제도 도입 추세 그리고 OVUM 및 ARC 그룹[ARC Group (2001)]과 같은 시장조사 기관들의 수익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. 특히, OVUM (2000)에 의하면 2005년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 매출액 대비, MVNO 비중은 ESP(Enhanced Service Provider)를 포함하여 2.6%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.4%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 더욱이, 이동통신 매출액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접속료 등과 같은 기타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MVNO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, 3% 이상의 시장 점유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이동통신시장의 MVNO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라 할 수 있다.

외국의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자편익 추정에 대

2) Virgin Mobile은 One2One (현 T-Mobile)과 50:50 출장방식으로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사로, 2002년 12월 현재, 영국 이동통신시장의 4.25%를 점유하고 있다.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료는 무료이며, 통화료는 기존 이동사업자인 Vodafone과 비교하여 최초 5분 동안 MM(동일망)의 경우 67%, NIM(타망)의 경우 30% 요금이 할인되어 서비스 된다 [Virginmobile (2002)].

1) 통화료는 MM(Mobile to Mobile) 타망 기준이며, 동일망의 경우 Vodafone과 동일하다.